

“췌! 조심! 에코랜드”: 조이스의 『피네간의 경야』 탈식민적 에코로 다시 읽기*

김 경 속

1. 들어가며

1990년대 이후 조이스(James Joyce) 문학은 기존의 전통적인 비평—신비평, 전기비평, 신화비평 등—의 한계를 넘어서서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 측면에서 재평가되기 시작하였다. 모더니즘, 보편성, 세계시민주의 등이 90년대 이전 조이스 비평의 핵심 키워드라고 한다면, 최근 비평에서는 900년에 이르는 식민 역사를 간직한 아일랜드 출신의 망명 작가라는 점에서 탈모더니즘적이며 탈식민주의적인 관점이 대두되고 있다.¹⁾ 이러한 경향은 『더블린 사람들』(*Dubliners*), 『젊은 예술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2A01010973).

1) 예를 들어, 멩가니엘로(Dominic Manganiello)의 『조이스의 정치성』(*Joyce's Politics*), 페어홀(James Fairhall)의 『조이스와 역사의 문제』(*Joyce and the Question of History*), 놀란(Emer Nolan)의 『제임스 조이스와 민족주의』(*James Joyce and Nationalism*), 쉹(Vincent Cheng)의 『조이스, 인종, 그리고 제국』(*Joyce, Race, and Empire*), 더피(Enda Duffy)의 『서벌턴 “올리시스”』(*Subaltern Ulysses*), 애트리지(Derek Attridge)와 호우즈(Marjorie Howes)의 편저 『세미콜로니얼 조이스』(*Semicolonial Joyce*), 그리고 오르(Leonard Orr)의

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율리시스』(*Ulysses*)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생산해내며 조이스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을 확대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탈식민 작가로서 조이스의 전복성을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텍스트인 『피네간의 경야』(*Finnegans Wake*)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독해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조이스 학계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여, 김종건 교수의 번역본과 주해본이 『피네간의 경야』에 대한 훌륭한 안내서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텍스트를 분석하려는 시도는 극소수에 불과하다.²⁾ 그러나 조이스가 『피네간의 경야』를 쓰기 시작한 1922년에 이미 영국 제국은 와해되기 시작하였고(Spurr 872), 그렇기 때문에 영국 제국의 와해와 탈식민주의는 『피네간의 경야』의 중요한 맥락을 이룬다. 따라서 본 논문은 탈식민주의의 관점에서 『피네간의 경야』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텍스트의 맨 처음과 맨 끝이 서로 맞닿아 다시 문장을 이루는 순환적 원형구조를 지닌 『피네간의 경야』의 경우 ‘시작’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피네간의 경야』 시작 부분에 등장하는 다음 문장은 상당히 흥미롭다. 이는 자신의 텍스트를 소개하는 조이스 특유의 작가적 자의식이 표출된 부분으로서, 『피네간의 경야』 집필에 대한 그의 작가적 의도를 짐작하게 한다.

아일랜드적 의미를 지닌 이 소리를 보라/마땅하다. 정말? 여기 영어가 보일지도 모르겠다. 아주 훌륭하게? . . . 췌! 조심! 에코랜드!

Behove this sound of Irish sense. Really? Here English might be seen. Royally? . . . Hush! Caution! Echoland! (*FW* 12.36-13.05)

『조이스, 제국주의, 그리고 탈식민주의』(*Joyce, Imperialism, & Postcolonialism*)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특히 아일랜드 출신의 비평이론가인 딘(Seamus Deane), 로이드(David Lloyd), 그리고 카이버드(Declan Kiberd) 등의 존재는 영문학 정전에 편입되어 온 조이스의 작품을 아일랜드가 겪은 식민 역사의 맥락 속에서 입체적으로 재조명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

- 2) 번역자로서 김종건 교수를 제외하고 『피네간의 경야』에 대한 국내 연구자로는 전은경 교수와 남기현 교수를 꼽을 수 있는데 전은경 교수의 연구는 해체주의 관점에 집중되어 있고, 남기현 교수의 경우 대중문화 측면에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다.

먼저, “behave”란 단어는 “옳다, 마땅하다”라는 의미가 일차적이지만, 문장 구조상 “behold”를 연상시킴으로써 조이스는 『피네간의 경야』에서 자신이 시도하고 있는 언어실험을 독자들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을 명령한다. 이어서 자신의 텍스트에 영어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정함과 동시에 “royally”를 통하여 독립 후에도 여전히 영국의 왕에게 혹은 공식 언어인 영어에 대하여 충성을 맹세해야 하는 상황을 조롱한다. 인용문의 마지막 구절은 더욱 흥미롭다. 마지막 단어인 “에코랜드(Echoland)”는 “메아리”(echo)와 아일랜드 공화국의 옛 명칭 에이레(Eire)와 더불어 아일랜드(Ireland)를 합성한 『피네간의 경야』 식의 신조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쉿! 조심! 에코랜드!”(Hush! Caution! Echoland!) 전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볼 경우, 텍스트 곳곳에 흩뿌려져 있는 『피네간의 경야』의 중심인물 “HCE”의 수많은 이니셜 목록³⁾ 중 하나가 된다.

동시에 “쉿! 조심! 에코랜드!”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새로운 민족 양심의 대장장이가 되고자 했던 스티븐의 예술 전략 삼위일체인 “침묵, 교활, 그리고 망명”(silence, cunning, and exile)에 상응하는 것으로 젊은 예술가 스티븐에 대한 성숙한 예술가 조이스의 패러디이자 『피네간의 경야』를 관통하는 예술 전략의 신 삼위일체로 볼 수 있다. 우선, “쉿”(hush)은 “침묵”(silence)과, 그리고 “조심”(caution)은 “교활”(cunning)과 어렵지 않게 연결될 수 있는데, “망명”(exile)과 “에코랜드”(Echoland) 사이의 연관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망명의 전략을 통하여 조이스가 의도했던 것이 아일랜드의 편협한 민족주의의 한계를 초월하고자 함이었다면, “에코랜드”를 통하여 조이스가 의도한 것이 영어에 대한 해체주의적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초국가적 공간으로서의 탈식민 아일랜드는 아니었을까?

요컨대, 본 논문에서는 “에코랜드”(Echoland)의 “메아리”(echo)라는 어휘에 주목하여 권력의 언어인 영어를 해체하는 조이스의 언어실험을 중심으로 『피네간의 경야』를 정통서사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대안적 서사로서의 탈식민주의적 “메아

3) 『피네간의 경야』 텍스트 전반에 걸쳐 흩뿌려져 있는 HCE의 이니셜 몇 개를 소개하자면, 만인을 의미하는 “Here Comes Everybody,” 아버지를 의미하는 “Haveth Childers Everywhere,” 영국 국교회를 의미하는 “High Church of England,” 화학식을 의미하는 “H2CE3”, 죄인을 의미하는 “human, erring and condonable,” 성인을 의미하는 “Ecce Hagios Chrisman,” 도시의 건축가를 의미하는 “Hod, Cement, and Edifices,” 더블린 자체를 상징하는 “Howth Castle and Environs,” 금융을 의미하는 “Honour commercio’s energy”와 “He’ll Cheat E’erawan” 등이 텍스트 곳곳에 산재해 있다.

리”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II. 『피네간의 경야』 선행연구

벤스톡(Bernard Benstock)은 자신의 저서에서 한 챕터의 제목을 “하얀 코끼리를 바라보는 40개의 방법”(“Forty Ways of Looking at a White Elephant”)이라 달고, 『피네간의 경야』의 텍스트가 갖는 난해함과 부분적 해석을 전체에 대한 해석 인양 확대하는 비평가들의 태도를 꼬집어 “장님 코끼리 만지기”에 비유한 바 있다. 물론 벤스톡은 『피네간의 경야』에 대한 부분적 해석이 갖는 한계와 위험성을 비판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조이스 스스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인정해 “만화경”(collideorscape, *FW* 143.28)에 비유한 이상 작품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초월적 시선을 고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할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선행 연구 하나하나가 결국 『피네간의 경야』라는 거대한 코끼리를 이루는 각각의 부위들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에, 『피네간의 경야』를 연구함에 있어서 그 어떤 작품보다도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

『피네간의 경야』에 대한 그간의 선행연구는 몇 가지 유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캠벨(Joseph Campbell)과 틴달(William York Tindall) 등의 초기 비평가들은 챕터별 줄거리를 통하여 『피네간의 경야』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둘째, 애트리지(Derek Attridge)를 비롯하여 많은 비평가들은 『피네간의 경야』에 사용된 신조어 혹은 합성어(portmanteau)들을 낱낱이 분석하는 데 집중하여 타 작품과 차별화되는 『피네간의 경야』만의 고유한 특성을 조이스의 언어실험에서 찾았다. 셋째, 애서튼(James S. Atherton)은 『피네간의 경야』에서 사용된 인용, 인유, 패러디 등 세부적인 텍스트 해석에 매몰된다면, 『피네간의 경야』가 갖는 전체적인 매력에 오히려 간과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하트(Clive Hart)는 후기구조주의 비평이론을 적용하여 『피네간의 경야』에 대하여 해석의 다양성을 논하거나 심지어는 그 어떤 해석도 가능한 텍스트라 주장하며 확실한 해석을 지양하는 최근의 비평 흐름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꼼꼼한 정독(close reading)을 통하여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마지막

으로 슬로트(Sam Slote)와 포드햄(Finn Fordham) 등의 비평가들은 조이스의 작가 노트와 『피네간의 경야』의 여러 판본을 대조하여 텍스트의 수정과 교정의 추이를 추적하는 소위 “발생론적 독법”(genetic reading)을 중시하였다. 물론 위의 다섯 가지 유형의 연구는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상보적인 관계 속에서 저글링을 하듯 활용할 때, 가장 풍요로운 연구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피네간의 경야』의 비평사를 연대순으로 좀 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출판된 연구서는 캠벨과 로빈슨(Henry Morton Robinson)의 공저인 『피네간의 경야』의 결쇠』(*A Skeleton Key to Finnegans Wake*)이다. 1941년 조이스가 사망했을 때, 『피네간의 경야』에 대한 신비를 풀어줄 것이라 기대했던 많은 이들이 크게 실망했던 것이 사실인데, 1944년 초판이 발행된 캠벨과 로빈슨의 해설서는 많은 조이스 학자들에게 다시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1962년 『경야 신문페이지』(*A Wake Newslitter*)와 이듬해 『제임스 조이스 계간지』(*James Joyce Quarterly*) 창간으로 『피네간의 경야』 비평은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 후 1969년 출판된 틸달의 『피네간의 경야』의 독자를 위한 안내서』(*A Reader's Guide to Finnegans Wake*)에 대해서는 『피네간의 경야』 각 챕터에 대한 세세한 분석을 제공해 주는 데는 성공했지만 전체적인 해석을 제공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1976년 자신의 박사학위논문 『“피네간의 경야”의 탈중심화된 우주: 구조주의적 분석』(*The Decentered Universe of Finnegans Wake: A Structural Analysis*)을 출판한 노리스(Margot Norris)는 『피네간의 경야』가 갖는 언어학적 복잡성을 권위의 구조에 대한 조이스의 공격으로 해석함으로써 『피네간의 경야』에 대한 해체주의적 비평의 문을 열었다. 1980년대 간행된 비평서 가운데 가장 큰 각광을 받은 것은 단연 비숍(John Bishop)의 『어둠에 관한 조이스의 책: “피네간의 경야”』(*Joyce's Book of the Dark: Finnegans Wake*)라 할 수 있는데 그는 『피네간의 경야』를 어둠 혹은 밤에 관한 작품으로 규정하고 프로이트(Sigmund Freud), 비코(Giambattista Vico), 이집트 신화 등을 토대로 하여 일종의 꿈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1989년 애트리지는 자신의 논문 「『피네간의 경야』: 해석의 꿈」(*Finnegans Wake: The Dream of Interpretation*)에서 프로이트의 대표 저서인 『꿈의 해석』(*Interpretation of Dreams*)에 대한 말장난(pun)을 통하여 비숍을 비롯한 다수의 비평가들이 『피네간의 경야』를 꿈으로 해석하는 경향에 일침을 놓았다.

『피네간의 경야』가 워낙 난해한 작품이기 때문에 출판 후부터 1980년대까지

는 어휘 분석과 챗터 별 줄거리를 제공하는 “해설서” 수준의 연구, 혹은 작품 전체를 꿈이나 인류의 보편 역사로 보는 환원주의적 해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포드햄이 지적하듯 『피네간의 경야』로부터 “투명한” 서사를 추출하는 것은 『피네간의 경야』에서의 조이스의 언어 실험을 무시하고 텍스트를 다시 직선론적 서사구조에 종속시킴을 의미할 수 있다(*Lots of Fun* 16). 물론 1990년대 이후 해체주의와 탈식민주의 이론이 문학연구 중심에 자리하게 되면서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피네간의 경야』를 분석한 연구서와 논문들이 상당수 쏟아져 나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네간의 경야』의 언어실험을 영어에 대한 일종의 에코로 보고 이를 다시 조이스의 반제국주의적 기획과 연결 지은 연구는 찾기 어렵다.⁴⁾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조이스의 언어실험이 어떻게 영어의 권위를 해체하고 피지배자의 언어로 변용되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피네간의 경야』에서 시도하는 조이스의 언어실험을 “저항적 에코”(recalcitrant echo)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텍스트 분석에 앞서, 본 논문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스피박(Gayatri Spivak)의 ‘에코’(echo) 이론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III. 스피박의 「에코」: 탈식민문학이론의 딜레마 혹은 새로운 가능성

본 논문의 중심 생각은 스피박의 1993년 논문 「에코」(“Echo”)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스피박에 따르면 산의 요정 에코의 존재와 그녀가 뱉어내는 메아리는 나르키소스(Narcissus) 신화를 재해석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준다. 나르키소스가 “자신에 대한 앓”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인식론을 상징한다면, 에코는 그러한 인식론의 외부에 존재하는 서벌턴(subaltern)적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스피박은 에코가 뱉어내는 메아리를 나르키소스의 발화를 전복시키는 해체적 울림으로 다시 읽는다. 이를 『피네간의 경야』에 적용한다면, 조이스식의 언어실험이 강요에 의하여 정복자의 언어를 수동적으로 반복하거나 흉내 내는 것이

4) 포드햄의 연구논문 「에코랜드 지도 그리기」(“Mapping Echoland”)의 경우 『피네간의 경야』 텍스트 내에서 “피네간의 경야”(Finnegans Wake)라는 제목이 변형되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지점을 추적하고 이를 다시 조이스의 작가노트에 나타난 집필 시기와 비교 분석하는 “발생론적” 독법을 취하고 있다.

아니라, 그 언어가 기반하고 있는 인식체계와 세계관 자체를 뒤흔들고 대안적 형태의 역사/세계를 제시하는 저항적 “메아리”로 재해석할 수 있다.

덧붙여, 에코의 존재가 서구 인식론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듯, 『피네간의 경야』에 대한 탈식민적 재해석은 그간 탈식민문학이론이 봉착한 이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극도로 난해한 언어실험⁵⁾이라 할 수 있는—극단적인 경우 무의미한 “말장난”으로 폄하되기도 하는—조이스의 『피네간의 경야』를 저항적이며 해체적인 에코로 재해석함으로써, 영국으로부터 아일랜드의 정신적/문화적 해방을 이끌어내는 데 조이스가 끼친 영향을 논의할 수 있고, 따라서 탈식민주의적 문학비평이 사회 현실에 개입할 수 있는 차원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탈식민문학이론이 봉착해 온 한계점은 탈식민주의가 식민주의라는 정치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태어난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신식민주의를 포함하여 실제 현실에서 이어지는 정치 상황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이러니와 관련이 깊다. 대표적인 비평으로 딜릭(Arif Dirlik)의 『탈식민 아우라』(*The Postcolonial Aura*)를 들 수 있는데, 이 책에서 딜릭은 “탈식민주의 비평가들이 탈식민주의와 현대 자본주의 맥락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개 침묵하고 있다”(53-54)며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정치적이어야 할 탈식민주의가 막상 국가들 간 정치권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탈식민주의가 현학적 탈정치성으로 악명 높은 해체주의이론의 한 지류로서 발생한 태생적 한계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⁶⁾ 그러나 후기구조주의가 제시해준 개념들—권력이 고착되어 있지 않다는 개념과 모든 사회관계를 중심과 경계, 주류와 비주류, 지배담론과 하위담론 사이의 역동적인 투쟁으로 바라본 관점 등—이 문화연구, 소수민족 문학 및 문화연구, 페미니즘, 젠더 연구, 그리고 탈식민문학연구 등 사회비판적인 연구 분야를 개척하였으며, 동시에 사회 구조를 과거에 비해 균등하게 재편함에 있어 실질적인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은 결

5) 『피네간의 경야』에는 77개의 언어를 활용한 5만개의 단어가 등장한다(Skrabanek 231).

6) 패리(Benita Parry)의 경우 자신의 논문 「이론에 대한 저항/저항을 이론화하기 혹은 토착 문화주의를 위한 두 번의 환호」(“Resistance Theory/Theorising Resistance or Two Cheers for Nativism”)에서 탈식민주의에 팽배해 있는 이중성(hybridity)이나 반본질주의(antiessentialism) 등 이론의 과잉이 오히려 “토착민들의 저항을 이론화하는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코 평가절하 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다.

두 번째로 탈식민주의 이론의 핵심적 딜레마로 자주 제기되어 온 또 다른 한계점은 서벌턴과 재현/대표(representation)의 문제이다. 물론 서벌턴(subaltern)이란 용어는 이탈리아 출신의 마르크스주의자 그람시(Antonio Gramsci)에게서 유래했지만, 이 개념을 탈식민주의 맥락으로 처음 끌어들이는 비평가는 스피박이다.⁷⁾ 그는 자신의 논문 「서벌턴은 말할 수 있는가?」(“Can the Subaltern Speak?”)에서 서구 이론가들을 향해 날선 질문을 던진다. 서벌턴은 말할 수 있는가? 즉, 정치적/문화적 헤게모니의 주변부로 밀려난 서벌턴이 과연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는가? 만약 이들이 스스로를 위해 말할 수 없다면, 누가 그들을 대변할 것인가? 그것은 과연 지식인들의 윤리적 의무라고 할 수 있는가? 만약 그것이 지식인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서벌턴의 욕망을 ‘투명하게’ 대변하고 전달할 수 있는가? 서벌턴을 위해 대변하려는 모든 시도가 결국에는 지식인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고 성취하려는 행위가 아니었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지식인과 서벌턴의 관계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이 많은 의문들은 결국 지식인이 서벌턴에 대해 갖는 ‘윤리적 책임과 한계’라는 하나의 주제로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이 책임과 한계 사이의 딜레마가 탈식민주의 이론에 내재된 아포리아를 구성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1993년 논문 「에코」를 통해 스피박은 서벌턴과 지식인 사이의 윤리적 문제로 다시 돌아온다. 「서벌턴은 말할 수 있는가?」가 출판된 지 5년만의 일이다. 이 논문의 가장 큰 목적은 오비드(Ovid)의 『변신』(Metamorphoses)에 나오는 나르키소스와 에코의 신화에 대한 전면적 재해석이다. 스피박에 따르면 기존의 정신분석가 혹은 비평가들은 나르키소스의 나르시스즘에만 집중한 나머지 에코의 존재를 축소시켜왔다. 이는 지식인과 서벌턴, 정신분석가와 환자 사이의 중요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환유가 된다. 즉, 코즈모폴리탄 중심부라는 특권적 위치에서 글을 쓰는 비평가들에게 빈곤과 억압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서벌턴은 타자일 수밖에 없으며, 타자를 위한 모든 재현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서벌턴은 결코 말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식인의 실패가 서벌

7) 1988년 간행된 『마르크시즘과 문화 해석』(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에 수록된 스피박의 논문 「서벌턴은 말할 수 있는가?」(Can the Subaltern Speak?)는 학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턴의 침묵과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식인들이 실패하는 지점에서, 서벌턴의 언어가 시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스피박이 「서벌턴은 말할 수 있는가?」에서 다루고자 했던 핵심 화두가 지식인의 실패라고 한다면, 「에코」는 그 실패의 지점에서 시작되는 서벌턴의 저항의 가능성을 다룬다고 할 수 있다.

스피박은 서벌턴의 언어와 저항 방식을 이론화하기 위해 나르키소스와 에코의 신화를 보다 큰 틀에서 다시 읽기를 시도한다. 산의 요정 에코는 어느 날 미소년 나르키소스를 보고 한 눈에 반하여 그의 주위를 맴돈다. 그러나 질투의 여신 헤라(Hera)에게서 절대 먼저 말을 걸 수 없고 타인이 한 말의 끝자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벌을 받은 에코는 결코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다. 그러한 에코를 향해 나르키소스는 질문을 던진다. “왜 나에게서 도망가요?”(Why do you fly from me?) 하지만 에코는 제대로 된 응답을 할 수 없다. 고작해야 나르키소스의 발화의 끝자락을 반복할 뿐이다. “도망가요, 도망가요, 도망가요”(Fly from me. Fly from me. Fly from me). 여기서 흥미롭게도 에코의 메아리는 나르키소스의 의문문을 명령문으로 변형시키며, 두 사람 사이의 대화의 주도권은 에코에게 넘어간다. 사실 오만한 나르키소스가 에코의 사랑을 받아줄 리 만무했다. 그는 타자의 욕망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나르키소스의 오만함을 좌절시킨 것은 에코의 고백이다. 즉, “도망가요”라는 그녀의 말은 실제로는 사랑의 고백이었으나 궁극적으로는 나르키소스를 자기만의 세계에 유폐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타자에 대한 윤리를 위반한 나르키소스가 자기애에 빠져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필연적이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에코의 메아리가 단순 반복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녀의 울림은 나르키소스의 발화의 의도와 의미를 지연시키고 변경시킴으로써 데리다(Jacques Derrida) 식의 “차연”(différance)을 생산해내었다는 것이다.

스피박이 재해석하는 에코는 비록 의식적으로 행한 일은 아니지만 그녀가 받은 벌이 오히려 펄박받는 상황에 처한 타자들에게는 권력을 부여해주는 일종의 “보상”으로 다시 해석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즉, 에코의 뒤틀리고 파편화된 메아리가 사실 헤라의 처벌에 기인하고 있었음을 상기해 본다면, 에코에게 내려진 처벌은 결코 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일종의 보상으로 변형되며 해체적이고 전복적인 에너지를 발휘하게 된 것이다. 같은 논문에서 스피박은 10년 전에 써놓고 출판하지 않은 티레시아스(Tiresias)에 대한 해석을 덧붙여 소개한다. 보통 인

간에게는 여성 혹은 남성으로서의 삶, 즉 반쪽자리 경험만이 허락되지만 예언가 티레시아스의 경우 여성이 되는 처벌로 인하여 남성으로서의 삶과 여성으로서의 삶 양쪽 모두를 경험함으로써 인간 삶에 대한 폭넓은 혜안을 갖게 된다. 따라서 티레시아스에게 있어서 여성이 되는 벌은 처벌인 동시에 보상이기도 하다. 뫼비우스의 띠처럼 서로 공존할 수밖에 없는 징벌과 보상의 구조는 결국 가부장제와 식민주의 그리고 그 속에서의 서벌턴 타자에 대한 윤리의 문제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차원을 열어 준다.

이러한 전복의 메커니즘에 대해 스피박은 인도 작가 데비(Mahasweta Devi)의 작품 「사냥꾼」(The Hunt)에 나오는 인물인 오라운(Mary Oraon)의 존재를 인용하여 보다 현실적인 힘을 부여한다. 오라운은 영국 지배자에 의해 겁탈당한 인도 여인이 낳은 여아이다. 일차적으로 이 아이의 존재는 영국이 인도에 가한 처벌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존재는 식민지배의 폭력성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다. 즉, 그녀의 기형적 생존은 메아리가 되어 식민지배의 폭력성을 고발하며 궁극적으로는 인도에 대한 영국 제국주의의 폭력을 종식시킬 수 있는 단초를 제공 해주었던 것이다.

처벌과 보상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 해석은 서벌턴의 저항방식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지만, 탈식민주의 이론이 맞닥뜨린 한계적 상황과 그것의 함의에 대한 알레고리이기도 하다. 나르키소스는 ‘삶의 대상으로서의 자아’라는 서구철학의 중심 문제를 표상하는 인물이자 그러한 담론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지식인의 초상이기도 하다. 바로 이런 구조가 지식인의 필연적 실패의 지점을 구성함과 동시에 탈식민주의 이론의 한계 상황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이는 곧 에코로 표상되는 서벌턴의 존재는 언제나 이미 지식인의 이론적 담론을 초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초과 지점은 서벌턴을 대변하고자 하는 지식인의 실패이자 이론의 실패를 표시한다. 하지만 그것은 이론과 지식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구성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바로 그 초과 지점을 통해 지식인과 그들의 이론적 담론이 자기지시적(self-referential) 체계에서 벗어나 타자 혹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IV. 조이스, 『피네간의 경야』, 그리고 에코

나르키소스와 에코의 신화에 대한 재해석을 조이스와 『피네간의 경야』에 적용했을 때 그 울림은 더욱 커진다. 조이스가 영국의 제국주의만큼이나 아일랜드의 맹목적 민족주의를 혐오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는 아일랜드 문화의 순수성을 믿지도 고수하지도 않았다. 그러한 그가 아일랜드 문예 부흥 운동과 그 중심에 있었던 게일어 부흥 운동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아일랜드 고유 언어였던 게일어는 이미 사어(死語)가 된지 오래였으며 문예부흥운동이 찾고자 했던 아일랜드의 문화적 과거는 신화적 과거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즉, 돌아가고 복원해야 할 문화적 과거와 근원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허구에 지나지 않았음을 조이스는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조이스가 자신의 작품에서 게일어 대신 영어를 선택한 것은 일종의 정치적/문화적 신념에 대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를 말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젊은 예술가 스티븐의 고백에도 잘 반영되어 있듯, 피식민지인으로서 정복자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조이스에게 끊임없이 심적 부담감을 가져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피식민지인으로서 조이스가 사용하는 영어는 영국인들이 사용하는 원본으로서의 영어에 대한 불완전한 모방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스티븐의 영어에는 불완전한 모방에 대한 자의식과 죄의식이 스며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율리시스』에 다시 등장한 실패한 예술가 스티븐 역시 이런 자의식을 완전히 떨치지 못한다. 하지만 그는 다소 다른 전략을 취한다. 그것은 “셰익스피어 공식”(Shakespearean algebra) — “햄릿의 손자는 셰익스피어의 할아버지이며 셰익스피어 자신은 자기 아버지의 영혼이다”(U 9.862-71) — 의 창안이 암시하듯, 원본과 모방 사이의 경계를 파괴함으로써 원본의 권위를 전복시킴과 동시에 사해동포주의(cosmopolitanism)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조이스가 영어의 문화적 헤게모니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네간의 경야』에서는 더 이상 모방에 대한 자의식이나 언어적 보편성에 대한 추구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작품에서 조이스가 보여주는 언어실험은 결코 영어에 대한 모방이라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 그것은 차라리 “메아리”

(echo)에 가깝다. 모방은 그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완전성을 추구한다. 하지만 메아리는 결코 완전함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원본에 대한 모방이기는 하나 완전함을 추구하지 않는 모방이다.⁸⁾ 그것은 잘려지고 파편화된 모방이다. 즉, 『피네간의 경야』에서 사용되는 영어는 영어가 아닌 영어의 메아리이다. 그것은 잘려지고 파편화되고 혼종화된 영어이다. 그곳엔 대영제국의 문화적 권력과 헤게모니를 위한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적 순수성을 위한 공간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차라리 억압받고 뒤틀리고 피 흘리는 피지배자의 형상이다. 『피네간의 경야』에서 조이스가 창안해낸 언어는 바로 이런 피지배자의 언어이며 메아리로서의 영어이다.

이스트먼(Max Eastman)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이스는 “나는 그들에게 그들의 영어를 돌려주려 해. 영원히 해치려는 건 아냐”(Letter II 546)라고 밝힌 바 있다. 조이스의 경우, 피식민 상황 속에서 영어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분명 영국 제국주의의 횡포이자 그에게 내려진 형벌이었다. 그러나 조이스는 그 형벌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나르키소스의 질문을 메아리로 돌려주었던 에코처럼 그는 영국에게 전혀 다른 영어를 되돌려 주었다. 그는 영어를 가르고 자르고 주무르며 타 언어와 뒤섞어버린다. 그 속에서 영국 제국주의에 억압되었던 피식민 서벌턴의 좌절된 욕망이 메아리처럼 영어 속에 울려 퍼진다. 이를 통해 원본으로서의 영어에 내재된 문화적 권위와 명령은 지연되고 좌절된다. 초월적 기의의 가능성이 폐쇄됨으로써 그의 언어는 다양한 언어의 기표가 자유롭게 유평하며 무한수의 의미화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파편화되고 잘려지고 혼종화된 조이스의 영어는 억압받고 피 흘리며 제국주의자의 자식을 낳아야 하는 피지배자의 형상이다. 그의 영어는 따라서 영어를 강요했던 제국주의의 폭력성을 노출시킴과 동시에 그것을 고발한다. 결국 처벌처럼 주어진 영어라는 언어가 조이스의 손에 들어온 순간 수십 개국의 언어와 혼합되어 영어의 순수성 혹은 제국주의가 주장하는 우월적 순혈주의를 공격하는 무기로 돌변하여 부메랑처럼 다시 그들에게 돌아간다.⁹⁾ 『피네간의 경야』의 언어를 이러한 탈식민적인 저항의 에코로 재해석하

8) 호미 바바(Homi Bhabha)의 탈식민이론 가운데 “거의 똑 같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은”(almost the same, but not quite) “흉내내기”(mimicry)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9) 이글턴(Terry Eagleton)은 『히드클리프와 대기근: 아일랜드 문화 연구』(Heathcliff and the Great Hunger: Studies in Irish Culture)에서 조이스의 가장 위대한 승리는 비-영어적 목

는 것은 결국 그의 작품 세계가 지니는 정치성의 새로운 측면을 드러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표준화되고 규범화된 영어의 사용에 대하여 『피네간의 경야』는 경멸을 표한다.

이제 우리 해보자고, 날씨, 건강, 위험, 공공질서 그리고 다른 상황들이 허락한다면, 완벽하게 편리한 상황이 된다면, 만일 당신이 경찰/원한다면, 당신 다음에, 경찰경찰/제발제발, 나를 용서해준다면, 나는 너무 개운한 기분이지? 이 헛소리를 집어치우고 똑바로 말해보자고. . . .

Let us now, weather, health, dangers, public orders and other circumstances permitting, of perfectly convenient, if you police, after you, policepolice, pardoning me in, ich beam so fresch, bey? drop this jiggerypokery and talk straight. . . . (FW 113.23-26)

위에서 조이스는 영어뿐 아니라 독일어도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mein, ich beam[bin], frisch”) “똑바로 말하지”(talk straight) 않고 있다. 그리고 특히 please가 예상되는 자리에 police를 넣음으로써(“if you police”) 표준어로서의 영어가 휘두르는 통제력을 경찰력에 비유하고 영어의 권위를 조롱한다.

『피네간의 경야』에는 식민화를 “coglonial expansion”(FW 488.31-32)이라 칭하는 부분이 있는데, 표면적인 의미를 거칠게 풀자면 “식민 확장”으로 볼 수 있지만, “coglion”(어리석다) 혹은 “coglioni”(고환)이라는 의미의 이태리어 어휘를 활용하여 식민화를 어리석은 남성적 욕망으로 간주한다. 동시에 “expansion”(팽창)이 예상되는 자리에 이태리어 “pancia”(배, belly)를 섞음으로써 식민화가 식민지 배자들의 배를 불리는 경제적 수탈 행위임을 꼬집음으로써 식민화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판단을 교묘하게 숨겨두고 있다. 또한 “improperial”(FW 484.20)의 어휘는 “improper”(불합리하다)와 “imperial”(제국주의)을 합성하여 제국주의의 불합리성

적을 위하여 영어를 전유한 후, 담론의 수준에서 식민 권력 관계를 전복시킨 사실이라 평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맥과이어(Peter A. Maguire)는 정복자가 원주민에게서 언어를 빼앗았을 때, 언어를 빼앗긴 원주민이 할 수 있는 궁극적인 복수는 정복자의 언어를 취하는 것이라 언급하며, 언어를 통하여 조이스는 에멧(Robert Emmet)이나 파넬(Charles Steward Parnell) 등 그 어떤 아일랜드 혁명가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327).

을 폭로한다. HCE의 이니셜 목록 가운데 하나인 “Haveth Childers Everywhere”라는 표현을 통하여 여러 나라의 땅을 차지하는 제국주의에 대하여, 여러 여인을 겁탈하여 온 세상에 자식을 퍼뜨리는 성적 문란함을 상기케 한다. 이렇듯 조이스는 언어실험을 통하여 식민권위를 남성의 성도착적 섹슈얼리티에 빚대어 표현하고 있다(Spurr 880).

『피네간의 경야』에 나타난 조이스의 언어실험의 목적은 다음 문장에서 매우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he would wipe alley english spooker, multaphoniaksically spuking, off the face of the erse” (FW 178.6-7). 우선은 “그는 영어를 구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구상에서 모두 쓸어버리려했다”(he would wipe any English speaker off the face of the earth)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는데, speaker가 예상되는 자리에 spooker를 씌으로써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공포의 대상인 “유령”(spook)과 연결 짓는다. 동시에 영어를 말하는 것(speaking)을 “구토”(puking)와 합성어로 만들어 “spuking”이라 칭함으로써 영어에 대한 염증을 표현한 점이 매우 흥미롭다. 이렇듯 영어와 영국 제국주의에 대한 조이스의 비판의식은 뒤틀리고 혼종화된 영어의 사용을 통하여 그 의도가 더욱 분명해진다.

V. 맺음말: 다성어를 통한 대안적 역사쓰기

『피네간의 경야』의 특이한 언어와 문체에 대해 조이스 자신은 편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모든 인간 존재의 위대한 부분은 완전히 깨어있는(‘wideawake’) 언어, 뚝뚝 끊기는 건조한(‘cutanddry’) 문법, 그리고 앞을 향하는(‘goahead’) 줄거리를 사용해서는 제대로 전달될 수 없다”(Letters III 146). 위에서 조이스는 “모든 인간 존재의 위대한 부분”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 살펴보았듯, 아일랜드의 (탈)식민 상황이 무엇보다도 조이스를 언어실험과 문체실험으로 이끈 중요한 맥락임에 분명하다.

조이스와 같은 식민 작가들에게 언어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정복자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정복자들의 문학전통을 풍부하게 해줄 뿐이라는 딜레마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딜레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조이스가 택한 방식은 결국 순수한 영어가 아닌 여러 언어로 된 혼종화된 다성

어(heteroglossia)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피네간의 경야』에 나타난 조이스 특유의 혼종화된 다성적 언어실험은 영어라는 식민 권위의 언어에 대한 저항 즉, 탈식민 주의적 저항의 메아리라고 보았을 때 그 진면목이 드러난다. 일찍이 아일랜드를 떠나 유럽을 떠돌던 조이스는 여러 나라의 언어를 뒤섞어 영어의 메아리를 만드는 작업인 『피네간의 경야』를 집필함으로써 비로소 나라 간 경계에 얽매이지 않는 초국가적 문학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율리시스』의 두 번째 에피소드인 「네스토르」(“Nestor”) 장에서 “역사는 악몽이다”(U 2.377)라고 외치는 조이스의 분신 스티븐은 악몽으로서의 역사를 떨쳐낼 “무한한 가능성들의 장”으로서의 역사를 상상하며(U 2.48-53), 내적 독백을 통하여 “바람을 짜는 자여, 짜라”(U 2.53)라고 읊조리며 역사 역시 다른 이야기들처럼 다양한 버전의 서술이 가능함을 상상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의 상상력은 이미 결정된 악몽으로서의 역사를 대체할 수 있는 꿈의 텍스트로서 『피네간의 경야』를 통하여 비로소 완성된다. 그리고 77개의 언어와 5만개의 어휘를 통하여 메아리치는 대안적 역사의 상상력은 한 번의 읽기로는 그 의미가 결코 해석되거나 고정될 수 없고, 읽을 때마다 서로 다른 해석이 메아리치면서, 늘 대안적 읽기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안양대)

인용문헌

- 김종진. 『제임스 조이스 “피네간의 경야” 주해』.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2.
- 남기현. “Joyce’s Comic Relief: Comics and Popular Magazines in *Finnegans Wake*.” 『제임스 조이스 저널』, 20권, 2014, pp. 75-91.
- . “Mass Media and Communication in *Finnegans Wake*.” 『제임스 조이스 저널』, 14권, 2008, pp. 165-85.
- 전은경. *The Intertexts of (Hi)story in James Joyce’s Finnegans Wake: Paradoxical Textuality and Infinite Variations on “The Sein Anew.”* U of Michigan P, 1991. 박사논문.
- Attridge, Derek. “*Finnegans Wake*: The Dream of Interpretation.” *JJQ*, vol. 27, 1989, pp. 11-29.
- , and Marjorie Howes, eds. *Semicolonial Joyce*. Cambridge UP, 2000.
- Benstock, Bernard. *Joyce-Again’s Wake: An Analysis of Finnegans Wake*. U of Washington P, 1965.
- Bishop, John. *Joyce’s Book of the Dark: Finnegans Wake*. U of Wisconsin P, 1986.
- Campbell, Joseph, and Henry Morton Robinson. *A Skeleton Key to Finnegans Wake: Unlocking James Joyce’s Masterpiece*. New World Library, 2009.
- Cheng, Vincent. *Joyce, Race, and Empire*. Cambridge UP, 1995.
- Devi, Mahasweta. *Imaginary Maps*. Translated by Gayatri Chakravarti Spivak, Thema, 2001.
- Dirlik, Arif. *The Postcolonial Aura: Third World Criticism in the Age of Global Capitalism*. Westview Press, 1997.
- Epstein, Edmund Lloyd. *A Guide through Finnegans Wake*. U of Florida P, 2009.
- Fairhall, James. *James Joyce and the Question of History*. Cambridge UP, 1993.
- Fordham, Finn. *Lots of Fun at Finnegans Wake: Unravelling Universals*. Oxford UP, 2007.
- . “Mapping Echoland.” *Joyce Studies Annual*, vol. 11, 2000, pp. 167-201.
- Gordon, John. *Finnegans Wake: A Plot Summary*. Syracuse UP, 1986.
- Hart, Clive. *A Concordance to Finnegans Wake*. U of Minneapolis P, 1963.

- . *Structure and Motif in Finnegans Wake*. Northwestern UP, 1962.
- Joyce, James. *Finnegans Wake*. Viking, 1939.
- . *Letters of James Joyce I, II, III*. Edited by Richard Ellmann, Faber, 1975.
- . *Ulysses*. Edited by Hans Walter Gabler et al, Vintage, 1986.
- Manganiello, Dominic. *Joyce's Politics*. Routledge, 1980.
- McHugh, Roland. *Annotations to Finnegans Wake*. Johns Hopkins UP, 1980.
- Nolan, Emer. *James Joyce and Nationalism*. Routledge, 1995.
- Norris, Margot. *The Decentered Universe of Finnegans Wake: A Structural Analysis*. Johns Hopkins UP, 1976.
- Orr, Leonard. *Joyce, Imperialism, & Postcolonialism*. Syracuse UP, 2008.
- Parry, Benita. “Resistance Theory/Theorizing Resistance, or Two Cheers for Nativism.” *Contemporary Postcolonial Theory: A Reader*, edited by Padmini Mongia, Arnold, 1996, pp. 84-109.
- Skrabanek, Peter. “*Finnegans Wake*—Night Joyce of a Thousand Tiers.” *James Joyce: The Artist and the Labyrinth*, edited by Augustine Martin, Ryan Publishing, 1990, pp. 229-40.
- Slote, Sam. “Reading *Finnegans Wake* Genetically.” *Text*, vol. 13, 2000, pp. 203-20.
- Spivak, Gayatri. “Can the Subaltern Speak?”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edited by Cary Nelson and Lawrence Grossberg, U of Illinois P, 1988, pp. 271-313.
- . “Echo.” *New Literary History*, vol. 24, 1993, pp. 17-43.
- Spurr, David. “Writing in the *Wake* of Empire.” *MLN*, vol. 111, 1996, pp. 872-88.
- Tindall, William York. *A Reader's Guide to Finnegans Wake*. The Noonday Press, 1972.
- Vico, Giambattista. *The New Science of Giambattista Vico*. Cornell UP, 1968.

Abstract

“Hush! Caution! Echoland!”: Rereading Joyce’s *Finnegans Wake* as a Postcolonial Echo

Kyoungsook Kim

This essay aims at interpreting Joyce’s *Finnegans Wake* as a postcolonial echo. In his earlier works, Joyce expresses his anxiety over English, the colonizer’s language, as the tool of his art. The English Joyce uses as the colonized cannot, so it is an imperfect imitation of the original English the British use as the colonizer. However, in *Finnegans Wake*, Joyce does not represent any self-consciousness about English. What Joyce does in *Finnegans Wake* is not imitation but echo. Echo does not seek for perfection because it is amputation and fragmentation in itself. The language of *Finnegans Wake* is not English but the echo of English, which is amputated, fragmented, and hybridized. It does not permit any space for cultural hegemony or power of the British Empire. It does not allow any space for cultural purity, either. This essay aims at analyzing how Joyce’s language experiment deconstructs the authority of English and reverberates recalcitrant echo.

The essential concept of this essay comes from Gayatri Chakravorty Spivak’s thesis “Echo” (1993). According to Spivak, the nymph of the mountain, Echo, provides a crucial moment of reinterpreting the myth of Narcissus. If Narcissus symbolizes the western epistemology centered on the knowledge of the self, Echo represents the subaltern who exists at the margin of such epistemology. However, interestingly enough, Spivak re-interprets Echo’s echoes as a deconstructing reverberation to subvert Narcissus’s speech. If we apply this inspiration to *Finnegans Wake*, we can re-read Joyce’s language experimentation not as a passive repetition or imitation of the colonizer’s language, but as a recalcitrant echo

destabilizing the very base of epistemology upon which English as the language hinges.

To sum up, this essay tries to reinterpret *Finnegans Wake* and its political/historical meanings from the perspective of postcolonialism, by analyzing its language experiments. This reinterpretation of *Finnegans Wake* as a recalcitrant echo in the context of postcolonialism will open the door to reading the text as an alternative historiography on a postcolonial Ireland.

■ **Key words** : Joyce, *Finnegans Wake*, postcolonialism, echo, subaltern
(조이스, 『피네간의 경야』, 탈식민주의, 에코, 서벌턴)

논문접수: 2018년 11월 21일

논문심사: 2018년 12월 6일

게재확정: 2018년 12월 17일